

2. 세상의 지배이데올로기

지난 주 복습.

- 예수의 계보(γένεσις=genesis =>genealogy)는 예수를 유대역사의 핵심에 배치하려는 목적 (왜? 세상이 그렇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), 곧 유대사람과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축복의 연장선 속에 예수를 위치=> 아브라함과 언약(창 12 장); 다윗과 언약(삼하 7 장).=> 롬 4:1-3; 갈 3:28-29
- 이 역사 읽기는 더 이상 지배자/승리자들의 역사가 아닌, 하느님의 눈 (하느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눈)으로 읽는 역사 => 정체성 선포, 신학 다시하기
- "성령으로 잉태"(1:18). 기존의 가부장 제도/지배이데올로기와 차별화 선언.
  - 예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창조(genesi)이야기. 질문의 요지. "how?"에서 "why?"로.
  - 어떻게(how)? => 일반적 현상/법칙이 있을 때 유효. 왜 이런 일이? => 현재의 상황을 설명/변명/변증하는데 필요. 예수의 삶이 특별하다는 선언! (어떻게? 모른다=> "성령으로")
- "이름을 예수라 하라"(1:21). 왜 예수인가? 예수 <=여호수아 (구원자); 애굽/제국으로부터 구출. 예수의 출생과 사명은 로마제국의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됨. 그럼 그 "구원"이란?

A. 세상 지배이데올로기의 도전

- 구원=> 1) 해방/해탈=>자유로움; 2) 복=>기복신앙....가치/추구하는 바
  -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? "죄"(1:21)=>현(現) 지배이데올로기. 그 피해의식으로부터
  - 대안은? 다른 세상살이=> '하느님 나라: 마태복음의 '천국'=>예수운동 (= => 교회운동)
- 세상의 지배체제의 도전
  - 헤롯왕과 예루살렘 제사장, 서기관  
=> 목적은 세상의 구원(1:21)이 아닌 파괴와 정복(2:16). 현상유지 Cf. Pax Romana
  - 엘리트 지배체제 vs. 무명의 피지배자 (동방박사). 출생지 베들레헴. "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"=> 작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

B. 예수 출생 비교: 마태, 누가복음

	마태복음 2 장	누가복음 2 장
출생장소	베들레헴 집에서(2:1),	구유에서 (눅 2:7)
시기	6 BCE (2:16, 19) =>예수가 2 살 때, 헤롯이 죽음(4 BCE)	4 CE (2:1) 구레노(Quirinius) 시리아 총독 때
여행경로	애굽으로 피신 (2:12) 후 갈릴리 나사렛으로 이주 (2:22-23)	울법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물을 드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감 (2:21)
등장인물	• 동방박사(μάγος, magi)=> "유대인의 왕"을 찾아 예루살렘(헤롯왕)으로 향함. • 헤롯=> 바로왕 (출 1:22; 4:19). 모든 대제사장, 서기관(2:4)	• 천사와 목자들 (2:8) • 목자들이 요셉, 마리아, 예수를 방문 (2:15-20)
Gifts	황금, 유향, 몰약=> 솔로몬과 스바 여왕 (왕상 10:10 => 마 12:42)	예수/예수의 부모가 예물을 드림
결론	• 요셉/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살았고, 따라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난 것은 당연. 나사렛으로 옮긴 것을 살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• 전쟁, 소요, 피신	• 요셉/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고, 베들레헴에 온 것은 인구조사 때문. 예수는 그 때 출생.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은 살던 집으로 돌아간 것 뿐 • "고요한 밤, 거룩한 밤"

생각해 보기

1. 신학적 의의. 마태,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2 개의 다른 사건? 혹은 다른 신학적 입장 반영?
2. 오늘날 예수—교회라 치고—를 대적하는 것은?